

# 석유화학, FTA 활용률 82% 달해

2012년 4월 국내 수입액 11억9600만달러 ...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

자동차부품, 섬유 분야의 FTA(자유무역협정)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6월26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(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)에 따르면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한국-미국 FTA 수입통관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FTA를 활용한 국내 수입액은 11억9600만달러로 집계됐다.

4월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4억5900달러로 FTA 활용률이 61.5%에 달했고, 섬유 분야는 8600달러로 68.7%를 나타냈다.

FTA 활용률은 관세청이 집계한 한국-미국 FTA 전체 활용률(59.2%)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(한국-아세안 3.5%에 한국-인디아 17.7%)와 비교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.

석유화학(81.5%), 타이어(79.4%)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제품은 한국-미국 FTA 활용률이 80%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, 농수산물식품의 FTA 활용률도 76.9%에 달했지만 주력 수출업종인 전기·전자제품군의 활용률은 51.9%에 그쳤다.

한편, 지원센터는 6월27일 한국-미국 FTA 발효 100일을 맞아 FTA 활용성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<FTA활용지원 업종협의회>를 개최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26>